

## 수가성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

### 요한복음 4:27-42

한 여인의 닫힌 마음을 열어 생명수를 공급하심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요즈음처럼 교회 부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흥의 비결은

첫째, 부흥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부흥의 씨가 되는 말씀 증거가 일어나야 한다.

### I. 부흥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가 막 끝났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정확한 때에 돌아왔다. 조금 일찍 돌아 왔었다라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방해했을 것이다. 좀더 늦게 돌아 왔었다라면 이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 한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구속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8에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31절에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다(32절)”. 그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신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내신이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50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양식은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내 음식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생명이다. 솟아 나는 샘물. 하늘에서 온 빵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굶주렸다. 그도 우리처럼 음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참 양식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중의 장벽을 헐고 사마리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 육체적인 배고픔을 잊으셨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은 당시는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헐고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구원 하신 것이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육체적인 양식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것을 체험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 난다.

## II. 부흥의 씨가 되는 말씀 증거

이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하신다.

35 너희는 너희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거두는 자는 제자들 너희라는 것이다. 거두는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몫이다. 거두는 사역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영적인 곡식, 영혼 추수는 씨를 뿌림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미 예수님은 씨를 뿌렸으니 바로 지금이 추수 때가 된다는 것이다.

예언자 아모스에 따르면 이것이 메시아 시대의 모습이다.

아모스 9:13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는 뜻은 씨 뿌림과 동시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라는 것이다. 씨를 뿌린 후 4개월이 지나야 추수를 거두는 자연 법칙과 달리 영적인 법칙은 씨 뿌림과 동시에 4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추수를 거둔다는 것이다. 지금은 추수 때요 열매를 거둘 때임으로 우리는 영혼 추수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다. 영혼 추수야 말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잃은 양을 찾은 후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눅 15:6)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눅15:9)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 왔을 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눅15:24).

이처럼 죄인 한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가장 기뻐한다고 하였다(눅 15:7,10절 참조).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은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추수를 위한 노동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 남자와 여자(죄를 지은, 용서받은 남자와 여자)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노력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참여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노력일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노력이 결정적이다. 십자가의 수고. 이것이 그의 주요 음식이었다. 십자가를 내다 보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한복음 17:4)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전도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여인의 뜨거운 마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 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듣도록 하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을 추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말씀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야 한다. 설교에서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성경을 문학책이나 도덕책 정도로 강의 하는 곳에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곳에는 진정한 부흥이 없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 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없어도 즐거워 할 수 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설교자나 듣는 자가 다 기도할 때 예수님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만을 증거 하는 말씀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말씀 듣는 일을 드라마를 보듯이 쉽게 들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난 설교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가장 즐거운 소식이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1)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후렴: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아침의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4)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